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7년 오늘 안성기·심은하 표창


안성기


심은하

세금 잘 내는 연예인 본업에서도 톱스타

배우 황정민과 한효주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는 기쁨을 안게 됐다.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납세자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66년. 정부는 이듬해 '세금의 날'로 시작해 이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시행해왔고 '조세의 날'을 거쳐 2000년부터 지금의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바꿔 기념행사를 치러왔다.

1997년 제31회 오늘, 배우 심은하와 안성기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경제부총리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소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심은하는 세무장부까지 작성해 소득세를 냈다.

그렇다면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1967년 3월11일 열린 '세금의 날' 시상식에서 가수 최희준, 배우 신영균과 엄앵란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참석했고 이들은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모범납세자로서 단상에 올랐다.

1986년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이 4년 동안 연예인으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그는 그해 3월3일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1982년에는 탤런트 최불암과 유지인, 가수 이은하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1990년대 이후 모범 납세자에 이름을 올린 스타를 보면, 1996년 배우 한석규, 1997년 심은하와 안성기에 이어 1998년에는 박중훈과 채시라 등이 있다.

역대 연예인 모범납세자들의 명단은 곧바로 당대 톱스타의 명단과도 다르지 않다. 인기가 많을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이들의 성실한 납세는 자신들에 대한 대중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갚는 것인 동시에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현우 기자 pudgala@donga.com

STAR FOCUS 미니앨범 '돌아와…'로 솔로 활동 가희

12년 걸린 솔로 꿈 CD보고 눈물 펑펑



열여덟 살 댄서 첫 발 걸그룹 하면서도 늘 솔로 가수 꿈꿔

춤보다 노래에 올인 1년간 보컬 특훈

애프터스쿨 탈퇴? 생각한적 없어!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12년 만에 이룬 꿈, 자꾸 눈물만…."

애프터스쿨의 리더 가희(본명 박지영·30)가 2월15일 미니앨범 '돌아와 나쁜 너'를 발표하고 솔로활동에 나섰다.

열여덟 살에 댄서로 연예계에 발을 내디딘 이후 12년 만에 이룬 가수의 꿈이다. 2009년 여성그룹 애프터스쿨로 가수가 됐지만, 그의 원래 목표는 솔로 가수였다.

그래서 2월 중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갓 인쇄된 자신의 CD 재킷을 처음 본 순간 한참 눈물을 흘렸고, 집으로 돌아가 자다가 다시 일어나 CD를 보면서 또 울었다고 한다.

"애프터스쿨로 데뷔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었다. 긴장도 많이 하고 다 같이 싸우러 나가는 군대처럼 으쌰으쌰 하면서 나왔는데, 솔로 데뷔는 책임감은 커졌지만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그런데 눈물도 많이 난다. 애프터스쿨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고 감정이 새로웠다."

가희는 원래 빠르면 작년 6월쯤 솔로앨범을 내려고 했다. '솔로가수 가희'의 첫인상을 강하게 남길 만한 노래를 찾지 못해 늦어졌다. 솔로 가수로 나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라이브'다. 여덟 명이 같이 노래 한 곡을 나눠 부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 가희의 라이브 실력에 관심을 집중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제가 춤 때문에 유명하고, 그걸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노래 실력을 궁금해 할 것 같았다. 노래를 위해서 이번엔 춤을 좀 포기하자 생각했다."

가희는 아이비 등을 가르친 보컬 트레이너 김희선 씨에게 약 1년간 특훈을 받았다. 네 곡이 수록된 이번 미니앨범 타이틀곡 '돌아와 나쁜 너'는 강한 비트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노래다. '원 러브'는 봄에 어울리는 미디엄 템포의 경쾌한 노래다. '선물'은 발라드곡으로, 가희가 예쁘게 부르려고 노력했다. '롤러코스터'는 애프터스쿨의 '뱅!'을 연상케 하는 드럼비트가 들어가 있다.

가희가 솔로가수로 나서면서 같은 소속사인 손담비와 자연스럽게 비교대상으로 떠올랐다. 가희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작곡가도 비슷해 손담비와 많이 비교하는 시선을 이해하지만, 나만의 모습을 봐달라"고 주문했다. 김완선 이효리 등 댄싱퀸의 계보를 이을 가수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누구의 자리를 잇기보다 나만의 색깔로 남았으면 좋겠다.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선배님이지만, 못해도 당차게, 못나도 자신 있게 나만의 모습, 가희로 살고 싶다"고 했다.

이번 솔로 활동은 애프터스쿨 졸업(탈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솔로는 솔로대로, 애프터스쿨은 애프터스쿨대로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욱이 "작년 애프터스쿨이 음악활동을 많이 못 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가희는 애프터스쿨과 함께 상반기 일본시장에 진출한다. 2월 중순 발표된 아무로 나미에의 베스트 앨범 수록곡 '메이크 잇 해픈'에 객원가수로 참여해 뮤직비디오까지 찍고 왔다.

"일본 관계자들이 '뱅!'의 드럼 퍼포먼스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하더라. 일본에 가면 우리가 가진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여성그룹 '애프터스쿨'의 리더 가희가 최근 솔로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나만의 색깔로 승부하겠다"는 각오가 당차다.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기적과 희망을 연주하는 카라카스 유스오케스트라.
사진제공 | 크레디아

빈민가서 쏘아올린 기적, 한국에 오다

▮ 백스테이지

카라카스 유스오케스트라 내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유스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한다. 내로라하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내한 못지않게, 그것도 프로 연주자가 아닌 청소년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시스템 '엘 시스테마'의 소속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이다.

'엘 시스테마'는 2008년 '기적의 오케스트라-엘 시스테마'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75년, 갱들의 총격 소리와 마약, 폭력, 강간이 난무하는 빈민가에서 전과 5범 소년을 포함한 11명의 아이로 시작한 '엘 시스테마'. 음악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탄생한 '엘 시스테마'는 현재 1만 5000명의 교사, 90개의 음악학교, 180군데의 교육장소(누클레오)를 두고 있으며 35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매머드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다큐멘터리 '엘 시스테마'를 처음 본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극빈층 자녀가 대부분인 아이들은 총에 맞을까 봐(실제로 총상을 입고 연습실에 나온 소녀도 있었다) 낮에도 마음껏 밖에 나오지 못하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악기를 손에 쥐고, 노래 하며,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

음계조차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4, 5세 어린이들에게 종이로 만든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쥐여 주고 정식 오케스트라 피트에 앉혀 입으로 연주를 지도하는 장면, 흰 장갑을 끼고 손으로 노래하며 청각장애아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빈민가 출신이지만 '엘 시스테마'를 통해 프로 연주자로 성장한 선배가 이들을 가르치던 모습 등 다큐멘터리는 그야말로 성장에 대한 감동의 모음곡 같다.

'엘 시스테마'의 성공을 보며 한국의 음악교육 시스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과 부모의 강압 속에 골방에 처박혀 하루 종일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이 쓴 교습서가 훗날 아이들에게 족쇄가 되고, 입시의 무게가 될 줄 바이엘과 체르니가 알았을까.

"음악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풍요를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엘 시스테마'의 창시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71) 박사의 말이 옳다. 음악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연주하게 가르친다는 교육론도 백번 동감한다. 영상으로만 보던 카라카스 유스오케스트라를 만나보고 싶다. 27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864호(2010.8.12)
사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셜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비특약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

최경아 교수의 6색 건강요가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청소년요가

활처럼 휘어져라! 굽은등 쫙, 히프 업

10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10분씩 평생 요가 수련을 한다면 큰 내공이 쌓이는 시간이다. 무심코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순간순간이 쌓이면 몸에 대한 좋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10분의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미친 듯이 파괴하고 싶은 욕망을 잠재우고 분노와 적괴심을 가라앉히는 명상을 병행하라. 심신이 아름답고 순수한 당신이 될 것이다. 요가를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요가와 명상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가아사나로 인한 슬림한 바디라인은 선물로 따라오는 것이다. 오로지 살을 빼려는 욕심으로만 요가를 수련한다면 차라리 다른 운동을 하거나 굶거나 성형을 하는 편이 빠를 것이다. 요가는 진정한 내면의 고결함과 외면 우아함의 종결이며 한결 성숙한 당신이 되기 위한 처방이다. 평화와 온유를 느끼며 요가를 즐기는 당신이 이 시대 최고의 멋쟁이다.

※효과:
1. 인체 앞부분의 이완을 유도하고 허벅지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아사나이다.
2. 굽은 등을 바로 펴주는 교정과 더불어 척추의 유연성이 증대된다.
3. 날씬한 허리와 힙업을 만들어 여성의 몸매 관리에 특효약이다.


1. 무릎으로 서서 상체를 바로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고 목운동을 병행한다.


2. 무릎 꿇고 앉듯이 엉덩이를 낮추고 팔꿈치부터 바닥에 댄 다음 천천히 눕는다. 10초 정지, 3회 반복.


3. 누워서 양손은 어깨 밑에 넣고 무릎을 세운다.


4. 숨을 들이마시며 엉덩이와 허리를 높게 들어올린다. 이때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듯 누르며 양팔꿈치를 쭉 펴준다. 10초 정지, 3회 반복.

※주의:
1. 2번 자세에서 상체를 완전히 눕히기 어려운 경우는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젖혀 팔꿈치를 90도로 접어 바닥에 대고 정지한다.
2. 4번 자세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무리하지 말고 개인의 유연성에 적합하게 수련한다.

글·동작 최경아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
저서: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